

㉔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과 메타프로방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1970년대 초반 담양군 담양읍~전북 순창군 금과면을 달리는 국도 24호선 약 8km 구간에 메타세쿼이아 2000여 그루를 심어 가로수길이 조성됐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나면서 이국풍의 키 큰 나무들이 하늘을 찌르고 도열한 모습은 로봇 병정들의 사열식 같다. 전국에서 가장 이름이 높은 이 가로수길이 2000년 5월 국도 확장공사의 불도저에 밀려 사라질 뻔한 위기에 처했으나 담양 군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군민들이 힘을 합쳐 막아내 지금은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2002년에는 산림청으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거리 숲'으로 선정됐고 건설교통부가 주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최우수상도 수상했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 운동을 다룬 '화려한 휴가'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로부터 시작한다. 이 영화에 관객이 많이 들면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관광객이 두 배로 늘었다.

메타세쿼이아 길은 사계절 관광지다. 봄에는 연녹색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에는 울창한 녹색 터널을 만든다. 메타세쿼이아는 낙엽이 지는 침엽수다. 가을에는 붉은 빛에 가까운 갈색이 되었다가 바늘잎이 다 지고 나면 하얀 눈옷으로 갈아입는다.



여름의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녹색 터널을 이룬다.[사진=담양군 제공]

메타세쿼이아는 원래 화석으로만 존재하는 멸종 식물로 알려졌던 나무. 1939년 일본의 미키 시게루(三木茂) 박사가 일본 지역의 나무 화석을 연구하다 처음 보는 나뭇잎 화석을 발견했다. 미국의 세쿼이아라는 나무와 비슷하지만 잎의 배열이 달라 After 또는 Post 라는 뜻의 Meta 를 붙여서 메타세쿼이아라고 1941년 학회에 발표했다. 그런데 2차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양쯔강 상류인 쓰촨성(四川省)의 마타오치(磨刀溪)강에서 산림공무원이 35m 높이의 거대한 나무를

발견하였다. 그는 처음 보는 신기한 나무의 표본을 난징대학에 보냈다. 그다음 해 베이징대학 부설 생물학연구소가 화석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메타세쿼이아임을 밝혀냈다. 마타오치 강 유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약 4000 그루가 강 연안에 자라고 있었다. 양쯔강 상류에서 발견된 이 나무는 그 후 중국 미국 일본을 거쳐 한국에 들어와 담양의 가로수길에 심어졌다.

1941년 발견된 '화석 나무'

메타세쿼이아는 포항지역에서도 화석으로 발견돼 한국에서도 석탄기 이전에 자생(自生)했음이 확인됐다. 메타세쿼이아는 낙우송(落羽松)과다. 공원에 가면 메타세쿼이아와 낙우송을 함께 심어 놓은 곳이 더러 있다. 두 나무의 외양이 거의 같아 구분이 어렵다. 메타세쿼이아는 잎이 마주 나고, 낙우송은 어긋난다. 낙우송은 밑동 주변에 기근(氣根·공기뿌리)이 혹처럼 솟는다. 깃털 우(羽)자가 들어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낙우송과 같은 과(科)인 메타세쿼이아는 깃털 같은 잎가지가 통째로 떨어지지만 낙엽송(일본 잎갈나무)은 침엽(針葉)이 하나씩 떨어진다.



가을의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단풍이 들면 바늘잎이 하나씩 떨어지지 않고 잎가지가 통째로 떨어진다. [사진=황호택]

남양주와 포천에 걸쳐 있는 국립수목원 명예의 전당에 가면 한국의 '붉은 산'을 푸른 숲으로 가꾸는 데 기여한 다섯 명의 부조가 있다. 세계적인 임목 육종학자 현신규 박사, 한반도를 누비며 나무종자 1000여 종을 채집한 김이만 할아버지, 조림왕 임종국 선생, 천리포수목원을 세운 민병갈 원장,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 입구 안내판에는 현신규 박사가 메타세쿼이아를 한국에 들여와 가로수와 조경수로 심었다는 내용이 간략하게 적혀 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입구에는 수령 70년의 메타세쿼이아 옆에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의 모수(母樹)’라는 안내판이 서 있다.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의 어미는 과연 어느 쪽인가.

전남대 치과병원의 메타세쿼이아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광주에서 양묘장을 경영하던 정하도씨가 일본에서 묘목 10여 그루를 최초로 들여와 그중 한 그루를 전남대에 연구용으로 기증해 치과병원 입구에 심었다. 전남대는 이 어미나木の 번식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1960년대 학술림 양묘장(지금의 용봉동 전남대 수목원)에 식재해 100여 그루의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되었다. 담양의 유명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는 이 나무를 재증식해 조성된 것이라는 게 전남대 치과병원 안내판의 설명이다. 자료 출처를 ‘전남대 학술림 사료집’이라고 밝혀놓았다.



있을 다 떨구고 뼈대가 드러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의 설경.[사진=황호택]

메타세쿼이아를 재증식하는 방법은 꺾꽂이(挿木·삽목). 전남대학교 대학역사연구회(회장 황호균 박물관 학예관)가 작성한 자료는 “담양의 김재호 씨가 전남대 메타세쿼이아에서 채취해 삽목해 번식시킨 묘목을 담양군이 김 씨한테서 구입해 메타세쿼이아 길을 조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 후 담양군이 가로수길을 확장해 나가면서 다른 묘목장에서도 메타세쿼이아를 가져

다 심었다. 그러니까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의 어머니는 돌인 셈이다.

담양 출신 명창 박동실의 외손자인 김정호(1952~1985)의 노래비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약간 벗어나 장승공원 가는 길 광장에 있다. 메타세쿼이아 길을 지켜낸 군민단체 연합체인 담양가로수사랑군민연대(사무처장 장광호)는 2014년 부터 주말에 20여 차례 공연을 통해 김정호 노래비 설립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였다. 김정호의 모친 박숙자는 국악인으로 영화 '서편제'의 실제 모델. 외삼촌 박종선은 아쟁산조를 체계화한 국악 명인이다.

김정호는 담양 외가를 통해 내려온 판소리의 가락과 서정을 대중가요로 표현했다. 이경엽 목포대 국문과 교수는 노래비에서 '김정호의 음악은 담양 광주 소리의 대중음악 버전'이라고 풀이했다.



2015년에 세워진 김정호의 노래비.[사진=황호택]

음~ 생각을 말아요 지나간 일들은
음~ 그리워 말아요 떠나갈 임인데
꽃잎은 시들어요 슬퍼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다시 필 걸 서러워 말아요

필자도 김정호의 또래 세대다. 우리 세대는 애조 띤 가락에 실린 '하얀 나비'의 가사를 대개 외우고 있다. 김정호는 스물한 살에 '이름 모를 소녀'로 데뷔했다. 어니언스의 '작은 새'와 '편지' 등 서정성 짙은 히트곡들을 그가 작곡했다. 김정호는 재능을 다 꽃 피우지 못하고 서른셋의 나이에 폐결핵으로 요절했다. 기타를 치고 있는 그의 동상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애뜻한 생각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 왜 천재는 요절하는가. 광주에 '김정호 거리'가 만들어졌으니 김정호 답사는 광주를 거쳐 담양의 노래비까지 와야 완성될 수 있다.



도로 확장으로 폐목 신세가 된 나무들로 제작한 장승들.[사진=황호택]

김정호 노래비에서 조금 더 가면 장승공원이 있다. 이 장승들은 2003년 담양읍~월산면 구간 국도 150호선 확장 공사로 폐목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가로수 100개를 재활용해 만든 것이다. 담양가로수사랑군민연대가 의뢰해 송학박물관이 1년에 걸친 작업을 통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 조선시대 관직을 비롯해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 등 200여 개의 다양한 형태의 장승으로 환생시켰다. 담양군민과 군민단체들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지켜내고 보존한 상징적 기념물이다.

메타세쿼이아 길 주변에 호남기후변화 체험관, 개구리 생태공원, 기후변화 지표식물원, 곤충 박물관 등으로 생태교육 코스를 만들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오기에 좋게 꾸며 놓았다. 호남 기후변화 체험관은 대바구니 모습으로 건축됐다.

체험관 입구에 들어서면 '애기사랑' 느티나무 고사목이 있다. 1998년 수북면 대방리 심방골에 있는 200년 수령의 느티나무 줄기 사이에 씨앗이 떨어져 애기느티가 자라기 시작했다. 2012년 8월 전남 내륙까지 휘몰아친 태풍 불라벤이 느티나무 거목을 쓰러뜨렸다. 고사목의 동치를 잘라서 이곳 기후변화체험관으로 옮겨왔는데 고사목이 너무 커서 나무를 먼저 설치한 후 건물을 시공했다. 애기느티는 고사목에 뿌리를 내리고 푸른 잎을 틔우며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고 있다.



태풍에 쓰러진 느니타무 고목 안에서 씨앗을 틈입 자라는 애기느티. 봄이 되면 파란 잎이 돌아나 생명의 강인함을 말해준다.[사진=담양군 제공]

버트런드 러셀이 '행복의 정복'에서 말한 것처럼 인생은 곧 막을 내리는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최초의 세포로부터 멀고먼 미지의 세계로 이어지는 생명 흐름의 한 부분이다. 태풍에 쓰러져서도 애기느티를 보호해 자신의 DNA를 후세에 전달한 고목 느티에서 우리는 지구와 인류라는 거대한 생명의 나무로 생각을 확장해나갈 수 있다.

메타세쿼이아 길로 둘러싼 삼각형 호수는 원래 논이 있던 자리다. 호수 안에는 작은 섬이 있다. 기후변화로 기온이 올라가면서 삼각형 호수에서도 철새의 텃새화를 관찰할 수 있다. 기후 감각을 잃어버린 여름철새인 물총새나 겨울철새인 흰뺨검둥오리를 아무 때나 목격할 수 있다고 한다. 바로 옆에는 공룡들이 활보하는 '어린이 프로방스'가 있다.

메타 프로방스, 담양에서 목고가세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옆에 조성된 메타프로방스는 죽녹원과 메타세쿼이아 길을 찾아온 가족 관광객들이 당일 떠나지 않고 담양에서 하루 더 묵을 수 있도록 기획 조성된 유럽풍의 관광단지. 프로방스는 이탈리아의 경계에 있는 프랑스 남동부 지방. 세계적인 휴양지 니스, 지중해 연안의 가장 큰 항구 마르세유, 고흐가 사랑한 마을 아를 등이 모두 이 지역에 있다. 메타프로방스는 프로방스에 메타세쿼이아의 메타를 빌려다 붙인 관광타운이다. 2013년만 해도 눈밭이던 곳이 남유럽풍의 도시로 변신했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옆에 유럽풍으로 조성된 메타프로방스.[사진=황호택]

메타프로방스의 주황색 기와지붕 건물들은 가을이면 단풍이 든 메타세쿼이아의 색깔과 잘 어울린다. 메타프로방스는 패션 거리, 디자인 공방과 체험관 연회장 등 문화와 예술 비즈니스가 공존하는 공간이어서 젊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만 분위기가 밝고 건강해서 가족 나들이에도 맞는다. 담양에서 이런 사업이 잘되겠나 하는 회의적 시각도 있었으나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담양군은 인근에 5만㎡ 규모의 농어촌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공원에는 농어촌의 삶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체험학습장과 특산물 판매장 등이 들어선다. 메타프로방스에 속소를 정하고 담양호와 추월산, 죽녹원, 관방제숲, 삼지내 마을, 정철과 송순의 누정들을 둘러보며 맛집을 찾는 슬로 투어는 담양 관광의 특색이다.

< 황호택 논설고문·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
후원=담양군(군수 최형식) 뉴파워프리즈마(회장 최대규)

참고문헌

편집인: 이해섭 장광호 국근섭, 발행인: 담양가로수군민연대 담양군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이야기》 2018, 이룸기획